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2일(일)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수 산 과	담당자	• 어업지도팀장 이재천 ☎440-4861 • 담당자 서현진 ☎440-4865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꽃게 7년 만에 최대 ‘풍년’

- 인천, 전국 꽃게 어획량 약 45%를 차지해 전국에서 꽃게를 가장 많이 생산 -
 - 꽃게 풍년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인천앞바다 특산물인 꽃게가 7년 만에 최대 풍년이다.

인천광역시는 금년도 가을어기 동안 꽃게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꽃게 어획량이 작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올해 봄부터 인천 연평어장에서 꽃게가 많이 잡혀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52% 증가했고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44%가 증가했다. 수협 위판량 기준으로 금년 11월까지 6,705톤을 어획해 작년 4,601톤 대비 46%가 증가했고, 금년 11월 한 달 동안 1,061톤을 어획해 작년 11월 어획량 415톤의 2.5배 수준에 달한다.

인천시 꽃게 위판량은 2014년 7,038톤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11월까지 위판량이 6,705톤으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풍어이다. 개인적으로 사매매하거나 개인 냉

동고에 보관해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위판하지 않은 비위판량까지 포함하면 10년 만에 최대 풍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꽃게 어획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여름 긴 장마와 인천시 꽃게 종자 방류 사업 실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한 것이 요인으로 꽃게 자원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천은 전국 꽃게 어획량의 약 45%를 차지해 전국에서 꽃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인천시에서 꽃게는 대단히 주요한 어종인 만큼 올해 꽃게 풍년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꽃게 어획량이 증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꽃게 어획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자 방류 사업과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하여 꽃게 자원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꽃게 사진



참고

인천시 꽃게 어획량(2014 ~ 2021)

(톤,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
위 판 량	7,038	5,499	5,095	5,470	4,411	3,638	4,784	6,705
위판금액	63,808	60,614	63,241	81,535	83,038	71,940	89,182	83,919

